

# 시각기호학으로서의 광고분석

정원일

평택대학교 예술학부 시각디자인과 교수

Chung,won il

department of visual design.pyung taek univ.

## 1.서론

기호학은 기호에 관한 학문이라기 보다는 의미의 파악과 생성의 모든 조건을 일관된 상위언어meta-language로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것은 구조주의 기호학자 A.J.Greimas의 견해로써 기호를 표현면과 내용면을 분리하고, 각각의 분리된 면에서 발견되지 않은 단위-즉 비기호적 자질-을 추출하고 이를 체계화함을 말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을 기준으로 광고나 디자인작품에서 나타난 일련의 메시지를 분석하고 기호학의 하위분야로써 시각기호학의 연구가능성을 고찰하고 기호학중 특히 시각발화체의 분석방법을 통해 작품을 분석하기로 한다.

## 2.시각기호학

흔히 소쉬르 이전의 언어학은 통시적 구조중심으로 언어자체를 문제삼기 보다는 언어가 놓여있는 역사적 비교학적 문헌연구에 치중되어왔다. 이에 반해 새로운 연구방법론으로 기호로서의 언어를 기표signifiant와 기의signifie로 구분하여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을 엘름슬레우Hjelmslev는 기표와 기의의 관계를 표현과 내용으로 나누고 표현은 형태로써 내용은 실체로써 해석하고 있다. 즉 엘름슬레우에 의하면 기표와 기의는 그 자체로는 주어진 질료에 의하여 형태를 거쳐서 드러난 실체일 뿐이라고 하고 있다. 즉 기호를 단순히 표현과 내용의 연결로 보지 않고 이 각각의 면을 다시 더 분절하여 해석하도록 그의 입장이 있다. 이러한 소쉬르-엘름슬레우의 학문적 선상에 놓이는 그레마스는 소쉬르의 기표와 기의의 이분법에 다시 엘름슬레우의 표현과 내용의 이분법, 그리고 그 각각의 면을 다시 형태와 실체로 나눈 입장을 수용해서 1차적 의미 즉 외시적 의미의 분석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레마스의 기호학은 텍스트에 관한 표현의 장과 내용의 장으로 나누고 다시 각각의 장을 형태의 층위와 실질의 층위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의 실질 혹은 질료의 상태란 엘름슬레우에 의하면 변할 수 있는 것, 즉 변형가능한 상태이고 이것은 변하지 않는 형태에 의해서만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항대립의 쌍으로 존재할 때 그 의미구조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질료란 의미전달의 매체가 되는 원료 혹은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 조형예술에 있어서는 공간속에 드러나는 점,선 등이 된다. 형태란 질료속에 부여된 질서 혹은 규칙으로서 그것을 분절하고 종합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엘름슬레우는 형태란 드러내지는 것이고 실체란 드러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음은 시각기호학의 명칭 및 연구범위에 관한 것으로써 시각기호학the visual semiotics은 기호학의 하위 분야로써 시각기호의 의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그러나 이 분야는 두 가지 이유에서 정의내리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첫번째는 기호학이 가지는 인식론적 조건때문이다. 기호학이 스스로를 종합적인 접근방법을 가지는 학제학으로 규정하면서 특정 감각기관에 호소하는 현상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를 떼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시각이란 수식어가 가지는 부적절함이다. 시각기호학이란 명칭만으로 볼 때에는 시지각 작용의 생리적 측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인식된 시각자극의 이해과정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가 분명치가 않다. 따라서 현재의 시각기호학은 인식론적 접근이 아닌 경험론적 접근에 의해서 규정할 수 밖에 없고 오늘날 기호학을 대표하는 석학으로 알려진 움베르토 에코도 '시각커뮤니케이션'이란 분야를 기호학의 한 영역으로 인정하면서 경험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프리에토의 형식체계,베르텡의 그래픽체계,이튼의 색채체계를 지나서 퍼스와 모리스의 도상기호iconic sign와 이를 둘러싼 그후의 논의에 이르는 과정을 이 분야의 흐름으로 보고 광고,만화,매스커뮤니케이션,복식,건축,지도,영화 등의 연구를 이 분야에 포함시키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각기호학의 연구영역은 다음과 같다.

- 1.퍼스모리스의 도상기호 이론과 관련된 연구
- 2.시각매체에 의한 매스커뮤니케이션 모델연구
- 3.시각현상의 규명에 요구되는 인접이론
- 4.도상기호와 시각코드에 관한 이론
- 5.광고영화기호론,디자인 등의 특정 시각기호체계분석등이다.

## 3. 도상기호로서의 시각기호학

도상기호icon,iconic sign는 시각기호학의 과학적 보편성을 갖는 실체로써 미학기호학의 발전과정속에서 인식론적으로 정착되어왔다. 흔히 도상기호학은 퍼스를 정점으로 출발하는데 퍼스의 기호학은 형이상학적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논리학의 범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퍼스는 특유의 삼분법trichotomy으로 모든 실체의 존재양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현상계의 존재양상을 인식성,이차성,삼차성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퍼스에 의하면 기호는 이미 실재하는 두가지 존재를 중재하는 전형적인 '삼차성'의 실재의 예가 된다고 한다. 먼저 기호는 자신의 삼원적 구조에 따라 이를 구성하는데 세가지 요소 즉 기호 그자신 또는 표상체representamen,대상체object,해석체interpretant의 관점에서 나누고 있다. 도상기호에 따른 시각기호학의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게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특히 롤랑바르트는 소쉬르의 언어 기호모델과 엘름슬레우,퍼스의 비언어적인 기호들에 관한 이론을 접목하여 시각텍스트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 즉 신화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그림은 그것이 의미하는 순간부터 하나의 문자가 된다. 문자처럼 그림은 어휘lexis를 요청한다. 기호학자는 문자와 그림을 동일하게 취급할 근거가 있다. 그가 문자와 그림에서 취하는 것, 그것은 문자와 그림 둘 다 기호라는 것이고, 의미하는 동일한 기능이 부여된 문자와 그림은 신화의 출발점에 이르러 둘 다 모두 대상 활동을 구축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기호가 갖는 함축적 의미는 사실상 기호의 성질인 다중성과 시공성에 의해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즉 이 기호를 읽는 사람이 사회문화적,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을 축적했는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시각기호나 영상기호에서는 그 의미작용의 문제를 약호code의 개념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약호란 메시지의 발신과 수신을 지시하는 다양한 전달분야에서 사회활동이 만든 관계조직을 설명하는 조직체계이다. 따라서 약호의 기능은 외시의미적 기능뿐만 아니라 기호를 어떤 대상체나 정신적 개념에 연결시키는지 또한 이러한 연결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기호사용자들이 의식하고 있어야 하며 약호 사용자 집단에 확산되어 있어야 한다.

## 4. 도상기호와 문자기호와의 관계

영상기호는 문자기호와는 달리 재현성, 다중성, 즉각성이란 특성을 지닌다. 도상기호의 기능으로 도상기호의 일차적인 정의인 지시 대상의 재현, 유사성을 들 수 있다. 도상기호란 지시대상과 빛 특질을 공유하거나 지시대상과의 유사함이라는 관계를 맺음으로써 대상을 지시하는 기호로 요약된다. 하나의 그림이나 사진은 편원적으로 여러 층위의 지각을 내포하고 있고 그것을 보는 메시지의 수용자는 그 층위의 선택에 어느 정도의 자유를 갖고 있어서 그 의미가 매우 다중적이다.

즉 수용자는 언어발화체보다 시각 발화체에서 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다중성의 특징외에도 그림이나 사진은 문자보다도 즉각적, 감각적으로 인식되고 기억속에 오래 남는 특징을 지닌다. 문자와 그림이 혼합된 작품을 보여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림의 내용은 기억하나 문자의 내용은 잘 기억해 내지 못한다. 그 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에서 표현되지 않은 의미와 설사 표현되었다 하더라도 더 큰 강도로 독자의 인식에 와 닿는다.

### 5. 구조주의 기호학

개인적·발화행위로서의 발화체 parole와 언어의 기본규칙으로서의 언어체 langue로 구분하고 발화체보다는 규칙체계로서의 언어체에 주안점을 두어 언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말한다. 구조주의 언어학은 언어의 발화행위를 가능케 하는 변별적 요소와 구조 그리고 규칙을 규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조주의는 의복이나 문학, 예의범절, 신화, 신체 언어 등과 같은 사회 문화적 현상을 한 문화의 구성원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일종의 '언어'로 파악하고, 이같은 사회 문화적 현상에 내재하고 있는 구조적 양상을 드러냄으로써, 이것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같은 구조주의적 시각에 입각한 약호의 연구가 기호학인 셈이다. 구조주의 기호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은 부분과 전체의 관한 관계들이다. 여기서 부분은 전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의미로와지며, 전체는 그것의 의미를 부분에서 얻게 된다. 부분은 좀 더 많은 이항대립의 쌍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레마스에 의하면 구조를 이룬다는 것은 이항대립의 쌍들을 지각하는 행위와 같다고 한다. 여기서 이항대립의 쌍 자체가 중요하기 보다는 그곳에 내재해 있는 관계적인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의 구조란 대립적 관계의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기서의 구조란 서열질서의 공간이기도 한데, 서열질서는 부분들의 변증론적 움직임을 허용하고 있다. 흔히 소쉬르를 기원으로 하는 프랑스 중심의 대륙기호학으로써 기호를 심리적 실재로써 하나의 개념 concept과 하나의 청각영상 image acoustique의 관계로 정의내리고 있다. 또한 소쉬르의 기호학은 연상주의적 심리학 la psychologie associationiste으로써 구조주의적 이원론 dyadique로써 해석하고 있다. 특히 구조주의 기호학의 완성은 그레마스에 와서 성립이 되는데 그는 의미의 역동성, 의미작용의 생산과 수용의 조건들, 그리고 담론의 창조성을 재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레마스는 엘름슬레우의 구조적 개념의 체계성과 형식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일체의 고정주의와 정태주의를 벗어나는 새로운 의미론을 형성화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그레마스 기호학의 토대는 서술적 제스처 le geste narratologique와 프롭프(1965)의 민담분석, 그리고 레비스트로스와 뒤메질 Dumezil의 작업에서 source를 얻고 있으며, 이들에게 있어 모든 의미현상은 하나의 이야기 recit로 분석될 수 있으며 그 결과 기호학은 일종의 서술학 혹은 서술문법과 동일시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레마스의 기호학은 '이야기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구조주의 기호학의 핵심은 기호학이 기호체계에 의해서 성립되지 않고 오히려 많은 하위체계들과 더불어 기호체계의 기저에 흐르는 관계적 그물망에 의해 의미가 성립된다고 한다. 바로 이점이 퍼스의 기호학과 구분이 되는 점이다. 특히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 carre semiotique은 작품분석에 주요한 틀을 제공해 주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하나의 동일한 의미범주, 하나의 동일한 구조를 구성하는 변별자질들 traits distinctifs이 유지하는 관계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기호사각형을 구축하기 위해 기호학은 언어내에서 작용하는 두가지 유형의 대립관계, 즉 결성관계 relation private와 질적관계 relation qualitative, 달리 말하자면 모순 contradiction과 반대틀

를 인식한 구조언어학의 지식을 이용한다. 그레마스의 기호학은 개별담화분석에 따른 별도의 이론이 아니며 전달의 기호학과는 달리 의미작용의 기호학이라 불리우고 있다. 그 전제는 기본적으로 '인간세계는 본질적으로 의미작용의 세계'로 규정되며 이 의미작용의 개념이 전달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즉 의미작용의 기호학은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물의 의미뿐만 아니라 전달에 무관한 기호들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분석대상으로서의 텍스트 자체에 중심을 둔다. 그레마스 기호학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먼저 의미작용의 이론을 세우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 의미의 생산과정과 그 의미를 포착하게 되는 조건들을 어떤 형태적인 개념들 즉 기호학적 개념들로 대치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작용의 기호학적 분석은 주어진 텍스트의 의미작용과 그것의 생산과정을 내재적 immanent 의미망 icseaux semantiques으로 구축한다. 이러한 의미구조의 조직에 있어서 의미결정은 일차적으로 텍스트의 외적 참조물과 텍스트가 놓여있는 역사적 사회배경등은 배제가 된다. 즉 통시적 구조로서가 아니고 공시적 구조로써 텍스트를 이해하고 서로의 내재적 연관관계에 의해 의미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 6. 작품분석 방법

일차적인 분석대상은 '드러남'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며 가장 표면적인 superficial 층위이다. 이 층위를 텍스트의 층위 niveau라고 한다. 두번째는 담화체적 층위 niveau discursif인데 언술행위 enonciation를 거쳐 기호학적 운용능력이 실행된 결과로 드러난 층위이다. 세번째는 좀 더 심층적인 단계로써 이야기체 층위 niveau narratif 혹은 표면적 층위라고 불리우는데 의미작용은 중개적 단계가 된다. 끝으로 기호학이 가정하는 의미의 가장 심층적 층위 niveau profond인데 이곳에서는 의미작용의 기본적 요소들, 즉 의미핵들과 그것들의 관계구조가 규정되는 층위이다. 이런 관점에서 분석대상에 대한 조형적 차원과 구성적 차원 또한 언어의 발화문이 어떻게 결합이 되는가 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시각적 차원에서 형태나 색채 등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밝히는 데 의미가 있다. 분석방법의 이론적 근거는 전술한 바와 같이 그레마스가 제안한 기호론적 사각형에서 고찰하는데 기호사각형은 일종의 구조주의적 분석의 틀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하나의 동일한 의미범주, 하나의 구조를 구성하는 변별자질들이 유지하고 있는 관계를 시각적으로 구체화시키는 방법이다. 기호의 사각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호학은 언어내에서 작용하는 두가지 유형의 대립관계, 즉 결성관계 relation private와 질적관계 relation qualitative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모순과 내립을 이용한 구조언어학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